

변하지 않는 말씀, 변화되는 우리

40 일 「말씀, 기도가 되다」 여정도 이제 마지막 3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편 119 편을 계속 읽다 보면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 앞에 날마다 다시 서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같은 말씀도 그날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말씀보다 새로운 감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십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 보여도,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말씀 앞에 꾸준히 머무는 것입니다.

남은 3 주도 조금해하지 마십시오. 하루의 말씀을 읽고, 한 구절을 붙들고, 짧게라도 반드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8월 예배위원

안 내	한규철	김정신		
기 도	이진교(2)	최상천(9)	조은영(16)	박래석(23) 한정임(30)

주일 예배 2026년 8월 9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복의 근원 강림하사 / 찬송가 28(신) 28(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60 번(시편 139 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나 주의 도움 받고자 / 찬송가 214(신) 349(구)

기도 / 최상천 장로

성경 봉독 / 호세아 14 장 1-9 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내게로 돌아오라 / 박화신 목사

찬송 /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찬송가 312(신) 341(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공중 나는 새를 보라 1.4 절 / 찬송가 588(신) 30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 회개는 단순히 죄를 끊기 위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삶의 가장 큰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삶의 안전과 미래는 앗수르와 우상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가장 신뢰할 만한 분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중요한 선택과 미래를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맡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큰 현실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참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8 월 10 일
Day 26 (월)

세상의 달콤함을 이기는 말씀의 맛

오늘의 말씀 (시편 119:101-104)

<개역개정>

101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2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4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새번역>

101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102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103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104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묵상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건넵니다. "적당히 요령 피우면 편해져",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하면서 말이죠. 그 달콤한 거짓의 길로 가려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 '말씀의 진짜 맛'을 아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불량식품에 미련을 두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하늘의 단맛과 기쁨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 세상의 알팍하고 거짓된 달콤함을 단호하게 미워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깁니다.

기도의 초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타협의 유혹을 끊어내고, 매일 주시는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여 죄를 거절할 영적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내 귀에 속삭이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거짓된 요령들에 내 발걸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 영혼의 미각을 깨워 주사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게 하소서. 하늘의 기쁨을 맛봄으로 세상의 불의한 길을 단호히
거절하고 미워하는 영적 정결함을 부어주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 설교 요약

네가 어디 있느냐

창 3:8-13

"하나님은

숨은 우리를

찾으시고, 회개는

그 부르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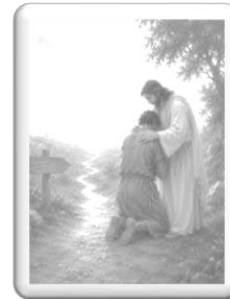
응답하는

것입니다."

1. 죄의 본질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심에 두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나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언약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2.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질문은 죄인을 몰아세우는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숨어 있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회개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3.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와 봉사에는 익숙해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는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새로운 결심을
하나 더 쌓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숨기를 멈추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8 월 12 일
Day 28 (수)

위태로운 삶의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

오늘의 말씀 (시편 119:109-112)

<개역개정>

109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1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12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새번역>

109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디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110 악인들은 내 앞େ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111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112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 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묵상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자신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은 잃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기가 없는 삶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붙드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기도의 초점

사방이 올무와 위기로 가득한 척박한 현실 속에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도망치지 않고, 변함없는 말씀의 능력을 내 최고의 기업으로 삼는 독심의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위태롭고 악한 자들의 올무가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떨며 꿈을 부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내 영혼의 영원한 기업과 재산으로 삼사오니, 위기의 순간에 말씀의 품으로 더 깊이 뛰어들어 하늘이 주는 진짜 즐거움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8 월 13 일
Day 29 (목)

한마음을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113-116)

<개역개정>

113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4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15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116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새번역>

113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114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115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116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 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묵상

마음은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생각하고, 가장 쉽게 위로받고, 가장 크게 흔들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 마음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내 마음은 지금 무엇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기도의 초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우유부단한 영적 태도를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 한결같은 믿음의 도를 지키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상황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흔들리며 세상과 양다리를 걸쳤던 내 두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은신처요 방패이심을 선포하오니, 내게 주신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단단히 붙잡아 주소서. 어떤 타협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는 영적 태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8월 14일
Day 30 (금)

찌꺼기를 걸러내시는 두려운 은혜

오늘의 말씀 (시편 119:117-120)

<개역개정>

117 나를 불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118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119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120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새번역>

117 나를 불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118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119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120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떨니다.

묵상

하나님은 찌꺼기와 금을 함께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에 걸러내시고,
거룩하시기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보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찌꺼기를 조금씩 건어 내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십니다.

기도의 초점

한 주간 내 영혼에 쌓인 세상의 정욕과 거짓된 찌꺼기들을 공의로운 말씀 거울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보고, 주의 거룩한 손길로 정결케 되기를 구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심판과 공의 앞에 내 영혼을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한
주간 내 마음 창고에 쌓였던 온갖 세상의 불순물과 정욕의 찌꺼기들을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걸러내어 주옵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사 주말 동안 내 영혼이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법을 경외함으로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8월 11일
Day 27 (화)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법

오늘의 말씀 (시편 119:105-108)

<개역개정>

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6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7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8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로운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새번역>

105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06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107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108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 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묵상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깊은 고난을 지나갈 때, 우리는 5년 뒤, 10년
뒤의 전체 지도를 한 번에 다 보고 싶어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내가 당장 내딛어야 할 '바로 그 한 걸음'을 비추는 작은 등불을 우리
발밑에 쥐어주십니다. 전체 지도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새 안개는 걷히고 목적지에 닿아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

미래에 대한 조바심과 불안감을 내려놓고, 오늘 내 삶의 지금의 자리에 비추시는
말씀의 등불을 따라 묵묵히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앞길이 캄캄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불안해하던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지혜로 인생 전체의 지도를 그리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발밑을 비추시는 주의
말씀의 등불에 집중하게 하소서. 심한 고난 중에도 주님이 지시하시는 '오늘의 한
걸음'에 담대히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